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9월 후원미사는 17일, 10월 후원미사는 15일, 11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8년 7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12,830,000	전월이월금	20,116
지 로	2,110,023	우리은행	3,017,920
국민은행	3,664,000	하나은행	891,000
조흥은행	85,000	신한은행	955,000
외환은행	322,000	제일은행	160,000
농 협	1,115,000	기업은행	245,000
우 체 국	40,000	교구보조	204,941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교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	운영비 등
지출 총액	12,825,000	잔액(이월금)	5,000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8. 8 / 제26호

펴낸날 2018. 8. 20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글

저희 위원회에는 중남미 공동체 미사가 한 달에 두 번 있습니다.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30-40여분이 함께 합니다. 미사는 11시이지만 언제나 미사 시작시간은 늦춰집니다. 느긋한 그네들의 기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관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니까 중남미가 발전을 못한다고 까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한때 '코리안 타임'이라는 편견을 들곤 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조선의 농민들이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며, 이 민족은 게으른 민족이라고 말하곤 했었다지요? 하지만 요즘 더 느끼지만 폭염에 한낮에 땀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규정짓고 결론냅니다. 이러한 방식이 익숙하고 어렵지 않으며 편안하기 때문이겠죠.

이것은 비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한 혼인미사 주례사제의 강론이 생각납니다. 내용인 즉, 결혼생활의 위기는 '내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다'라고 마음속에서 결론짓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의 내가 다르고 1년전의 내가 다르고 10년전의 내가 다를지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결론짓는 것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일까요. 인간관계의 정수는 끊임없이 타자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나가며 느끼는 기쁨일 것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온나라가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배척의 목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에게로 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하지만 조금만 판단,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편견, 더 나아가 극단적인 혐오의 마음에는 그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틀안에 타인을 가두는 법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웃음과 여유가 가득한 주님의 평화가 후원자 분들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공동체 소식

#### 상호문화센터 소식\* - 문화로 배우는 베트남어

구청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에 두 시간씩 노동사목회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교육을 끝마치고 방학 중입니다. 교육을 통해 상호 문화가 소중함을 알고 교류를 통해 우리 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와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베트남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나은 교육으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 베트남공동체, 필리핀공동체 여름캠프 소식\*

베트남공동체는 7월 21~22일에 120여 명이 충남 요나성당, 대전해수욕장으로, 필리핀공동체는 8월 4~5일에 100여 명이 충남 태안해수욕장으로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와 같은 개인의 여가시간이 없는 이들에게 이번 캠프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국



에서 일하며 쌓인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기쁨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 남미공동체 페루 독립기념일 행사\*



페루의 가장 큰 기념일로 독립기념일을 꼽습니다. 1532년 스페인에게 정복된 후 300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아오다 1821년 7월 28일 완전한 독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페루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지 196주년 되는 해입니다. 페루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10일전부터 도시 곳곳에서 아이들부터 어른, 노인들까지 형형색색의 의상을 입고 다 같이 춤을 추며 행진을 하며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중심지인 산마르틴 광장에서 시작해 아르마스 광장까지 공연이 끝없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각 학교마다 독립기념일을 위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분장하고 길거리 공연을 펼치는 한편 어른들도 거대한 모자와 익살스러운 화장으로 무장하고 행진을 합니다.

페루의 독립을 기념하며 남미공동체에서는 지난 7월 22일 일요일에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기념미사와 독립기념 축하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100여 명의 남미 가족들이 참석하여 독립을 기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국립어린이 과학관 견학



▲ 소방대피훈련



▲ 생일잔치

### 문화알림 결혼문화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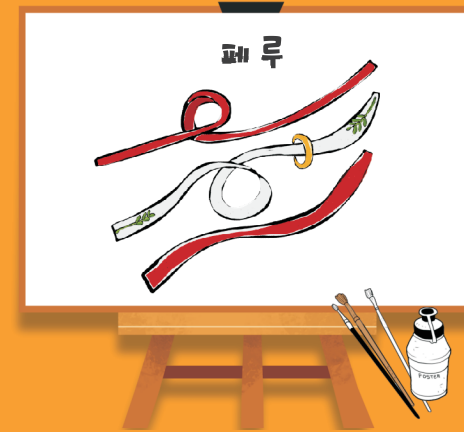
전통 결혼식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지만 현대에는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베트남 결혼 의상은 보통 여성은 빨간색 또는 분홍색의 아오자이에 불사조나 여러 문양 등이 들어간 의상이고 칸동이라는 머리 장식을 하며 남성은 그에 비해 간단한 스타일의 파란색 의상을 입는데 붉은 빛은 장미빛 결혼생활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색깔로 믿기 때문이라 합니다. 현대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식 10일 전 신랑은 신부가 요구하는 만큼 연꽃씨와 차와인 등을 신부 부모님에게 선물해야 하며, 또 신부가 사는 마을에도 지참금을 내야 결혼증명서가 발급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참금은 베트남의 도로를 만들고 우물을 파는 등의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는 조상에게 재단에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재물을 바치는데 죽은 조상들의 은덕을 입어야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주로 성당에서 실시하며 신랑은 정장,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착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결혼식은 예물, 결혼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결혼을 선언하면, 신랑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엽니다.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치르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풍속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고 일정 기간 신부 부모에게 봉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인 장모가 신부를 키우느라 애쓴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에서 행합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결혼식 전통중의 하나가 결혼식이 끝나면 제일 먼저 신랑이 성당 문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한 가정의 의사결정을 하는 우두머리이며 부양자로서 결혼 생활 동안 대부분이 그의 규칙에 따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 쌀과 꽃을 던집니다. 쌀은 생활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번창하기를 바라는 뜻이며, 꽃은 달콤하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시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적 결혼식이 있는데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는 것이며 이외는 별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성당에서 혼배 미사를 하고 피로연을 갖습니다. 늦은 시간에 결혼식을 시작하여 밤새 춤과 노래로 피로연을 합니다.

한국에서 부케 받는 의미와 비슷한 속설인 케이크풀이 있습니다. 결혼식 날 케이크 자르기 전, 여성 하객들이 케이크에 달린 끈을 당기며 다음 번 결혼 주인공은 누구인지 예상해보는 것입니다. 끈 하나에는 반지가 달려 있고 그 끈을 선택한 사람이 다음 결혼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페루 산악지대에서의 결혼식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여자 가족에게 닭, 양, 기니피그, 소 등의 동물을 결혼 선물로 보내고, 여자측은 남자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또 다른 전통으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주 울퉁불퉁한 감자를 주고, 며느리는 감자를 깎아야하는데 만약 한 번에 잘 깎아내면 좋은 엄마가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과를 예쁘게 깎으면 예쁜 자식을 낳는 속설과 비슷합니다.